



함평 꽃무릇큰잔치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해보면 용천사 일원에서 열린다.

'꽃향기 가득' 함평으로 가을 나들이 나서볼까

꽃무릇큰잔치 21~22일 용천사 일원
난타공연·7080콘서트·가요제 등 다채

대한민국 국향대전과 함께 전남 대표 가을 축제 자리매김한 함평 꽃무릇큰잔치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해보면 용천사 일원에서 열린다.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 인근은 국내 3대 꽃무릇 군락지 중 하나로, 60여만 평에 이르는 전국 최대 규모의 꽃무릇 자생지로 알려져 있다.

지난 85년 '한국의 자연 100경 중 48경'에 선정되며 그 빼어난 절경을 인정받기도 했다. 매년 9월 중하순경이면 만개한 꽃무릇과 함께 전국 각지의 가을 나들이객이 천년고찰 용천사를 보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통일신라기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용천사에는 석등(지방유형문화재 제84호), 목조여래좌상, 석탑, 부도, 괘불석주 등 귀중한 문화유산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 특히 반쪽짜리 해시계는 지금도 낮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묘시(卯時):6~8, 유시(酉時):18~20시)은 사용이 가능하다.

고즈넉한 용천사와 화려한 꽃무릇이 한데 어울려 만들어내는 장관은 21일 열리는 해보면 용천사 꽃무릇큰잔치에서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함평 꽃무릇큰잔치는 21일 오전 퓨전난타공연을 시작으로 공식 개막선언과 함께 막을 올린다. 개막식 후엔 잔디광장에서 펼쳐지는 민화합 한마당과 민민 다들타공연, 오후엔 마을별 장기자랑과 초대가수 공연이 차례로 열린다. 22일에도 팝페라 공연을 비롯해 7080 콘서트, 꽃무릇가요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이밖에 천연삼파(비누) 만들기, 패션페인팅, 캐리커처, 천연염색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함께 함평 농·특산물 판매장, 먹거리장터, 수석전시관 등도 운영된다. 나운수함평군수 권한대행은 "9월 하순부터 10월 초순까지의 용천사 인근은 꽃무릇 웅단으로 뒤덮인 신비하고 환할한 광경 그 자체"라며 "가을 내 용천사 인근을 꼭 한번 방문해서 가족, 연인들과 소중한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정창현기자 jch3857@srb.co.kr

완도군, '공직자 비위행위 점수제' 도입

완도군이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완도군은 4일 공직비리를 적절하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직자 비위행위 점수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공직자 비위행위 점수제'는 불친절이나 소극적 업무처리, 무단 이석·결근, 직무 태만, 지시사항 불이행, 허위 초과근무·출장 등 비위행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비위 점수가 쌓일수록 페널티가 부과된다. 페널티로는 인사 전보, 인사 감점, 사회봉사활동, 성과상여금·복지 포인트 미지급,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배제, 교육 훈련·국내외 연수 배제 등이다. 비위행위 점수 최대치인 10점이 되면 직위해제 조치된다. 완도군은 지난 한 달 동안 비위행위 점수제 운영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거쳐 9월부터 본격 적용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공직자 비위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공직자 비위행위 점수제를 운영한다"며 "이 제도를 정착시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조성근기자 chosg11@srb.co.kr

나주시 '소통 글판 문안' 공모 16일 마감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오는 16일까지 2019년 하반기 '소통 글판 문안' 공모를 실시한다. 소통 글판 문안은 25자 내외로 창작 또는 문학작품 속 글귀를 발췌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도전과 용기, 희망과 사랑, 지역의 미래, 발전상 등을 전하는 감성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 응모 희망자는 나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시 총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lyw6723@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응모작은 문안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개의 입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부문별 시상상은 최우수상(50만원), 우수상(30만원), 장려상(20만원) 등이며, 부상은 나주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입상작은 현수막 디자인 작업을 거쳐 동 행정복지센터 등 주요 기관 5곳의 외벽에 게시할 예정이다.

나주=김진숙기자 suk1586@srb.co.kr

낭만항구 목포 1천만 관광시대 연다

최장 해상케이블카 개통 계기
대표여행사연합 등과 업무협약

목포시가 국내 최장의 해상케이블카 개통을 계기로 1천만 관광객 유치 시대를 위한 행보에 들어갔다.

4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전남 한국대표여행사연합, 목포해상케이블카㈜와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3자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업무협약은 오는 7일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가는 목포해상케이블카를 기반으로 목포가 서남권 관광거점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요 관광주체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는 김종식 목포시장과 유귀석 한국대표여행사연합회장, 정인태 목포해상케이블카㈜ 회장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국내·외 관광객의 목포유치를 위한 관광 마케팅 등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58개 국내 주요여행사가 회원으로 소



김종식 목포시장과 한국대표여행사연합, 목포해상케이블카㈜ 관계자 등이 3일 목포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갖고 있다.

속된 한국여행사대표연합은 국내·외 관광 시장 개척 및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권위 있는 단체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목포의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낭만항구·맛의 도시·근대역사문화도시·국제 슬로시티·문화예술도시' 목포의 매력을 국내·외에 홍보해 관광객을 유인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목포=백민성기자 mspark214@srb.co.kr

씨 없는 청포도 '샤인머스켓' 본격 수확

강진군, 6농가 2.4ha 면적 재배
향 좋고 당도 뛰어나 '망고포도'

강진군은 고당도 청포도인 샤인머스켓 포도의 수확이 본격 시작됐다고 4일 밝혔다.

샤인머스켓은 껍질째 먹는 씨 없는 포도로 향이 좋고 당도가 뛰어나 일명 '망고포도'라고 불린다.

최근 수확이 급증해 충북 등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인기과수이다. 강진에서는 현재 6농가가 2.4ha의 면적에서 샤인머스켓 포도를 재배하고 있다. 군은 재배기술 수요에 대응하여 연구회를 조직하는 한편 선진농가 견학, 재배 기술교육,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 농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농업기술센터는 다른 품종의 포도보다 저장기간이 긴 샤인머스켓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의 저장환경을 시험해 저장기술을 농가에 보급



강진군 도암면 만덕농원에서 고당도 샤인머스켓을 수확하고 있다.

하는 등 판매시기 연장과 수출품목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샤인머스켓 포도 인기로 급격히 재배면적이 늘어 공급과잉이 우려됨에 따라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기술을 연구 보급하고 가공 상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농장 운영하는 등 농촌 융·복합사업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강진=김원준기자 jun09714@srb.co.kr

'가을 전령사' 불불락 축제 20~21일 홍도서

신안군은 국내 대표 관광지인 홍도에서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홍도 불불락 축제'를 연다.

가을의 전령사 불불락은 연안에 정착해 갑각류, 작은어류, 갯지렁이류 등을 섭식하는 어종으로 2~6월에 산란을 하며, '열기'라고도 불린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해상 선박 퍼레이드, 불불락 회무침 요리 및 시사회, 짝꿍 경매, 초정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

영암군, 바우처 이용자 추가 모집

영암군은 올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이용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개발 선정하면 수요자가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는 바우처형식 서

버진다. 또 선상낚시 체험행사에서는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전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170호이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홍도는 아름다운 기괴암석과 신비한 자연의 비경을 자랑하는 섬이다.

한편, 홍도는 목포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쾌속선으로 2시간30분 거리에 있다.

신안=박기욱기자 pkw4803@srb.co.kr

농협 진도군지부, 영농폐비닐 수거비 기탁

NH농협 진도군지부가 최근 진도군청을 방문, '농촌사랑 영농폐비닐 수거사업' 지원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사업은 농촌에 방치돼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농촌폐비닐 수거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 운동의 하나로 추진됐다.

이번 기탁금은 농촌환경오염의 주원인인 영농폐비닐을 수거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 조성을 위한 진도군 영농폐비닐 수거 지원 사업 장려금에 사용된다.

군은 지난해 기준으로 영농 폐비닐 2천162t을 수거했으며, kg당 60원~80원씩 1억2천900만원의 수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또 체계적인 영농 폐비닐 관리를 위해 형태와 구조를 개선한 마을단위 공동 수집장을 매년 지속적으로 설치·운영, 현재 159개소 수집장을 운영하고 있다.

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농촌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폐비닐을 수거를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진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백민성기자 m3753@srb.co.kr



무안 현경면, 무연고 분묘 별초 봉사

무안군 현경면(면장 조수정)은 지난 31일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청년회 등 기관사회단체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경면 외반리에 위치한 공동묘지에서 추석을 앞두고 무연고 분묘 별초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무연고 분묘 별초는 연고자가 없이 방치돼 있는 분묘를 대상으로 현경면 기관사회단체들이 별초와 함께 공동묘지 진입로 및 주변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수정 현경면장은 "투철한 봉사정신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에 감사드리며, 무안에서 가장 살기 좋은 현경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백태영기자 mdn007@srb.co.kr